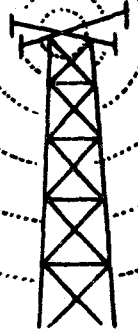


12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불황을 끝맺는 단 한가지의 길

양계업계의 불황이 이제 1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간 일시적인 가격회복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극히 짧았으므로 실제 양계업자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간 본지에 여러 가지 형태로 수차 언급되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그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육계의 비축이나 부화업자나 실용계 사육업자의 양심에 호소하여 생산조절을 실시하여 줄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다 실효를 견우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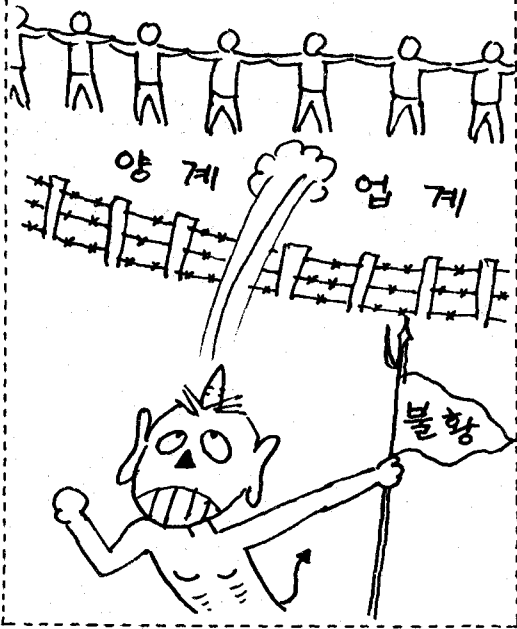
각자 개인적으로 생산조절도 해보고 직접 트럭에 싣고 시판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왜 각자 종계를 줄이고 입식을 조절하는 데도 불황은 계속 되는가?

여기에 미국에서 직접 있었던 실화를 하나 소개 하고저 한다.

넓은 옥수수 농장에서 일을 보고 나온 한 부인이 갓난 아기를 옥수수 밭에 두고나온 것을 뒤늦게 알고 옥수수 밭에 다시 들어가 찾았으나 아기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 부인은 마을로 돌아와서 보이스카운과 걸스카운 대원에 호소하여 많은 대원들이 넓은 옥수수 밭에 들어가 아기를 찾기 시작하였으나 몇시간을 헤메어도 아기는 찾지 못하고 어머니는 이제 거의 실신 상태로 아기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때 한 대원이 우리가 뿔뿔이 헤어져 찾

< 손을 잡으면 ---- >



지 말고 모두 손을 잡고 일렬로 서서 찾아나가
자고 제의하여 모든 대원들이 손을 잡고 옥수
수 밭을 헤쳐 나갈때 얼마후 한 대원의 밭에
뭉클하고 밟히는 것이 있어 아래를 보니 아
기는 옥수수밭을 헤메다 지쳐 쓰러져 죽어있
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죽은 아기를 엄
마에게 안고가니 그 엄마는 죽은아기를 받으며
“우리가 진작에 손을 잡았더라면”이라는
후회의 한마디를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마치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

이제라도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된다.

각자 스스로 생산조절을 하는것도 한 방법
은 되겠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손을 잡고 생
산조절을 하면 효과는 더욱 크기때문이다.

“우리가 진작에 손을 잡았더라면” 지금의
불황은 막을수도 있었을텐데.

생선류도 80년부터 수입개방

지난26일 수산청에 의하면 국내 생산 부진
에 따른 국내 생선가격 안정을 위하여 오징
어 전갱이 조기등 일부 수산물을 수입하도록
희망 업체에 수입추천을 하여 주었으나 국제
가격이 높아 소량만 수입하므로써 국내 생선
값 안정에 기여도가 낮으므로 전 수산물 수
입을 자동 승인(AA)품목으로 전환시킬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수산청은 그간 폭락한 국내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수산물 수입
추천을 않고 있으나 년말 년시 가격안정용으
로 일부 다시 수입을 하고 80년부터는 수입추
천에 따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하여 전품목
을 자동승인 품목으로 할 것을 고려중에 있
다고 한다.

최근들어 닭고기값을 비롯하여 돼지, 계란
등 양계 양돈업의 극심한 불황에 처하고 있
고 특히 노폐계는 그나마 처치가 거의 불가
능한 상태에 까지 이르고 있어 큰문제가 되
고 있다.

농업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육류간 또는 동
물성 단백질 식품간에 대체 현상이 크게 일
어나 이제는 불황이 모든 축종에 함께 밀어
닥치므로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생선류
가 닭고기나 계란과의 가격차에 따른 대체 효
과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자료가 없어 정
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영향이 큰것 만은
사실이다.

11월23일 최근 조사된 수산물 도매 시가는 다음과 같다.

품명	kg당가격	품명	kg당가격
광어	2,200원	갈치	260
도미	3,800 "	새치	210
민어	3,500		
복어	1,700	쇠고기	2,963(지육)
고등어	130(하품100)	돼지고기	592(지육)
도루묵	250	닭고기	900(가정용)
대구	1,500		
냉태	158		
생태	300		
전갱어	400		
조기	1,500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축산물 보다 현저하게 값이싼것이 고등어 도루묵 명태 갈치 새치등 kg당 150원~250원이 많아 80년도에는 년초에 불황이 타개 되기를 바라는 양축가에게 희망적이지 못한 소식이 아닐수 없다.

TV를 보고 있노라면 수산물을 실은 냉동차가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생선을 판매하는 곳에 주부들이 줄을 선 것을 가끔 보게 된다. TV로 이광경을 볼 때마다 저 주부들이 닭고기나 계란을 살 돈으로 생선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하여 본다. 현재도 대구 청어는 자동승인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생선을 아파트 단지에서 파는것을 주부들에게 홍보하는 TV뉴스시간이 계란 닭고기를 홍보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지기를 바란다.



또 내린 돼지고기값 또 내릴지도

농수산부는 11월20일부터 돼지고기의 소매가격을 600g에 100원을 인하해서 900원에 팔도록 하였다. 또 서울 부산과 각 도청소재지와 이에 준하는 인천 마산, 울산, 성남시등에서는 비계를 뺀것을 900원에 팔도록 의무화 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계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것을 권장하되 비계를 뺀것은 800원, 빼지 않은것은 700원으로 하고 각 지방장관이 지방실정에 따라 그 이하로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지난 8월13일 정부는 돼지고기 소매가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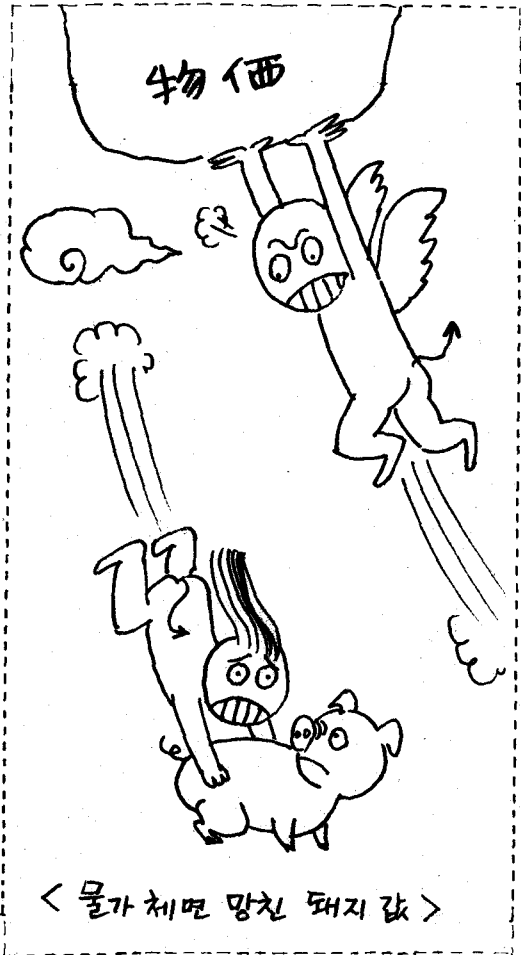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조정된뒤 이번이 두번째로 인하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물가하면 오르기만 하는 것으로 알던 우리에게 이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돼지고기 가격은 10%인하된것 같으나 비계를 제거 하므로써 실질적으로는 20% 이상 인하된 것으로 닭고기와 가격면에서 대체 효과가 가장큰 돼지고기 가격의 인하는 부로일려 업계로서는 큰 타격이 아닐수 없다 닭고기의 경우 현재 비수기인데다 김장철이 되고 일반 요식업소에서 소비가 크게 감축되고 있어 더욱 장기화 되고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배합사료 가격도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인상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며 현재 배합사료공장에 135\$선에 공급되는 옥수수 가격도 인천항도착에 160~165\$정도까지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배합사료 가격인상 시기로는 적합치 못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며 자칫하면 축산생산기반이 무너질 우려 마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황이 오늘 이유로 종계입식지도의 실패나 계란의 수입을 비롯한 축산물의 수입과 일반 경기의 진축에 따른 소비 감퇴등을 들고 있다. 물론 옳은 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1979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탄 슐츠교수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정책 기술 투자에 따라 풍부해 질 수도 있고 빈한해 질수도 있다는 슐츠교수의 말은 우리나라 농업분야 중에도 특히 축산업에 종사하는 우리가 음미해야될 말인것 같다

지금까지 양계분야에도 확대 재생산을 위한 간이계사 또는 부동산 종계등에는 투자가 이루어 졌으나 유통가공분야나 질병예방을 위한 분야에 얼마나 투자 되었는지 묻고싶다



< 물가 체면 망친 돼지값 >

우유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이 가격조정기능이 전혀없는 불안한 가격의 등락으로 축산업이 투기화 하여가고 있다.

이제라도 왜 양계산물의 생산비가 높은지 원인을 분석하고 양축가들의 신뢰를 받는 축산물의 가격체제로 양축가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이나 유통 소비에까지도 투자할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는 길만이 불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